

한울
타리

SPRING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9 No 1 2019.3.31
편집: 홍보위원회

한울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최재원 윤경문 목사

이영길 목사

사순절과 교회력

저희 교회 강대상을 장식하는 스카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셨을줄 압니다. 바로 교회력에 의해서 매년 다른 색깔의 스카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달력이 있는데, 그 중 성경을 따르는 달력은 출애굽하는 날을 새해 첫 날로 삼습니다. 반면 교회력은 크리스마스 전 대강절 첫 날을 교회력의 첫 날로 삼습니다.

대강절은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 때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라색은 사순절에도 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 몇 주간은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장식합니다. 그 후 언급한 대로 사순절이 오는데 다시 보라색으로 장식됩니다. 보라색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부활절 후는 당분간 부활절기로 하얀색으로 장식합니다. 이는 축하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지나면 일반적인 색깔로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면 대강절과 사순절은 보라색인데 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고 왕 되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고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게 만나십시다



2019년도 당회 및 각 위원회

당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장양술	
	재단 이사회	이문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운영위원회	이유탉	
	건물 관리위원회	이정규	
	교육 1 부 위원회	강상철	
	교육 2 부 위원회	한문수	
	교육 3 부 위원회	방경남	김옥식 장로
	교인 1 부 위원회	이문영	윤미자 권사
	교인 2 부 위원회	안성완	
	국내선교위원회	이선영	유승오 집사, 이혜원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이정민	김경애 권사
	예배예술위원회	박신영	안명훈(1 부), 김대식(2 부) 집사
		1 부 찬양대장: 김한나	2 부 찬양대장: 김영범
	재정위원회	김영범	회계: 김진기집사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동규	
	홍보/출판/역편위원회	김한나	
	행사위원회	장양술	최학수 집사
	집사회	김대식 집사	집사회 고문: 이정규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장양술 당회장 이영길(당연직)	이사장 이문영, 방경남 재정위원장 김영범(자문)	
공천위원회	이정민	한문수	
회계 감사	김한나		
노회 총대	당회서기(당연직) 장양술	강상철	

2019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교구	교구장	구역장	교구	교구장	구역장
북동 구역	장양술	김동숙	중서 1 구역 중서 2 구역	김영범	서명숙 김제성
북서 구역	박신영	채진병	중서 3 구역 중서 4 구역	엄재관	정정숙 김경섭
중앙 2 구역	한승희	김경애	남동 구역	이선영	이재영
중앙 3 구역 중앙 4 구역 중앙 5 구역	안성완	이재익 장봉준 신보경	남서구역 영어구역	이정민 김세철	정광근 이혜승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반 이름	인도자	부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요한반	방경남 장로	심윤보 집사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마울반	이재익 집사	정하균 집사
안드레반	박신영 장로	김영순 집사	부부청년반	한문수 장로	전은영 집사
빌립반	노시일 집사	이선영 장로	강의식 성경공부	이요한 목사	
			금요 저녁반	노시일 집사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예배

1, 2월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를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로 은혜롭게 드리고, 계속해서 토요일 아침기도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3일 1부 예배에 권사취임식 (2명), 2부에는 제직임직 및 은퇴 예배로, 재임 장로 (5명), 재임 안수집사 (23명),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13명), 합 43명의

제직들이 임직을 하고, 권복태 장로의 은퇴식을 했습니다. 재의 수요일 예배(3/6/2019) 와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3/7/2019 ~ 4/20/2019) 사순절 재의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기도회 (평일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8시)는 여러 교역자들이 교대로 말씀증거를 하고, 많은 분들의 봉사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모임준비 (최학수 집사, 안성완 장로), 친교 및 다과 (곽서영 집사, 윤만강 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회 반주를 찬송가 반주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임서리집사 교육

1월 27일 오후 1:15에 오찬 후(김영순 집사의 점심대접) 이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12명의 신임 서리집사들을 대상으로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영길 목사님의 목회철학이 담긴 이민신학 (세물신학)을 소개하며 우리 교회의 비전과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예술위원회 모임

2월 24일 오후 1:15에 Room #19에 모여서 오찬 후 신임 봉사자들과 각 팀원들을 소개하고, 예배예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예술위원회 팀별 기타활동

- 1부 찬양대 부대장으로 수고하신 김진기 집사가 사임하시고, 1부 찬양대 총무로 최 페이지 교우가 임명되었습니다.
- 새 봉사자들로써 최수경 집사 (동시통역), 백지형 교우 (찬양팀), 사공현일/박정은 집사들(예배위원)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본당에 스마트폰/테블릿 등 음원을 microphone으로 연결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순절 새벽기도회에서 활용) 했습니다

홍보 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왔습니다. 2007년부터 발행해 온 사순절 묵상집을 올해 2019년도에 13호를 발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드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의 글과 간증 등으로 책자를 엮어주신 교우님들의 수고와 관심, 사랑, 기도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책자로 인쇄된 사순절 묵상집이 배부되어 애용되고 있고, 김정선 장로님의 수고로 E-Book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려졌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애용하시는 App.에 저장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Android, Google Play Books, iPhone, iPad에서는 iBook, PDF Reader, Kindle등으로 읽기에 편합니다. 특히 차례에서 색깔 box를 누르면 각 주의 시작 날짜로 jump, 이영길 목사님의 묵상으로 갑니다. (단 Kindle은 jump가 안됨)

왼쪽위의 줄새개 목차를 누르면 전체 책 페이지 icon이 다시 보입니다. 다음 날 다시 읽게 되면 어제 읽은 페이지가 나오니 손가락으로 밀면 다음 날로 이동합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성경귀절 액자가 안수민 (고등부)학생의 수고로 제작되어서, 각각 화장실 안 문과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졌습니다.

선교사 후원 변경

A) 2018년 말로 후원 중단/보류:

- 전주 선교사 (니카라과 와 쿠바): 뉴욕주 Westchester 연합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심으로 선교지의 후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승훈 Peru 선교사의 은퇴로 선교비 후원 중단합니다.
- 유안나 권사. 선교 사역지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고 그리고 개인 사정이 있어 본인의 요청으로 후원 보류합니다.

B) 새로운 사역지/사역자:

PCUSA 교단 선교사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역하고 있는 Noah Park/Esther Shin 선교사 부부를 2019년도부터 교단을 통해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선교 시일 잠정적으로 12월 3째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장소: 과테말라 김도연 선교사 사역지

3월 17일: 단기 선교 설명과 orientation을 국내 선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직 임직 및 장로 은퇴 예배

12월 3일 주일 제직 임직 및 은퇴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재 임직된 장로와 안수 집사, 신임 서기집사의 임직식이 있었고 구역장 및 소그룹 인도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퇴 장로로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권복태 장로님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신임 서리집사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에 임직식을 행하지 못한 2분의 윤만강, 윤미자 권사님의 취임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재임 장로: 안성완, 이유택, 이정규, 장양술, 한문수 장로(5명)

재임 안수집사: 곽서영, 김명은, 김연희, 김영순, 김준구, 김희정, 김희현, 노윤경, 박관희, 박미숙, 박선희, 손영권, 안명훈, 안은신, 윤선미, 이성희, 이승연, 이강필, 전현임, 정하균, 정은아, 조유미, 지훈 집사 (23명)

신임 서리집사: 곽동민, 김경진, 김영돈, 김정연, 서재영, 양수연, 엄상원, 오주경, 윤병준, 이혜경, 정선혜, 정신영, 황수진 집사(13명)



집사회

집사회장 김대식 집사 보고 한세진 집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3)

2019년도 집사회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회장 김대식 집사님, 총무 최학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총 열 두명이 팀을 이루어 교회의 살림 한 부분을 돕게 됩니다. 주요 활동에는 제직 수련회, 교회 대청소, 한가족 예술제, 상록회 야

유회, 전교인 야유회, 집사회 정기총회 및 제직회, 경조사 관리, 선교 약품포장 지원, 노숙자 식사제공 협력, 청년부 식사 및 다과 준비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교회 일을 돕게 되는데 저희 집사들의 의무의 밑바탕은 “무엇보다도 먼저 궁핍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규례서에 의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했던 자들에게 가장 가깝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저희도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집사회가 진행하는 행사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멤버 누구에게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봉사의 기회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집사회가 작은 도구가 되어 모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봉사하는 저희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성경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활동사항:

2/21: 전교인 야유회 장소 예약:

Larz Anderson Park (Shelter + 2 bbq)

2/23: Ken Grant 목사님 아버지님 소천 경조금

3/3: Rev Dr. Horace T Allen 소천 경조 화환

3/10: 2부 친교 다과 준비

3/17: 청년부/Youth 그룹 식사 준비



집사회 구성:

회장: 김대식,	총무: 최학수,	서기: 신정옥,	회계: 최형태,
건물관리: 임상균,	봉사부: 사공현일,	경조부: 박미정,	문화부: 노현철,
친교부: 최재원,	선교부: 장봉준,	홍보부: 한세진,	사진부: 최정환,
고문 장로: 이정규,	고문 집사: 이재익		

교인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록 기도회

회장 이숙재 권사

살롬,

흰눈이 무릎에 넘치도록 쌓여서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관이었지만 참으로 눈 치우기가 쉽지만은 않은 2월, 3월 초였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노란 개나리 꽃잎 위에

소복히 쌓인 4월의 눈송이를 기억합니다. 그 길고 지루하던 동장군도 이제 서서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15일(금)은 날씨가 완전한 봄이었죠. 살랑대는 바람에 따뜻한 햇살, 그러나 또 언제 심술을 부리는지는 모르지만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줍니다. 봄별을 따라 걸다 보니 어느새 땅속에서 수줍은 듯 움츠리고 기다리던 새싹들이 엄지 손가락만큼 자라서 그 연한 초록색 새싹을 내밀며 봄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상록기도회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모여서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 1월 모임(1월 27일)에는 고 김갑성 장로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생전의 장로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가족들의 정성어린 음식들을 대접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상구 권사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솜씨에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 김영미 권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회의가 끝난 후 재활원에 계시는 최선경 권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홍경자 장로님, 김형범 장로님, 이계순 권사님은 먼저 가셔서 최 권사님과 담소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실례하지만) 귀여우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마음 든든했습니다. 신좌경 권사님도 찾아 뵈을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다음날 찾아 뵈기로 하고 이정숙 권사와 김정림 권사와 함께 최 권사님의 방으로 가서 권사회에서 챙겨주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살펴보니 셋째 며느님(홍경애)의 손길이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고 백린 장로님과 찍으신 사진, 보내주신 카드, 문 앞에 걸린 꽃다발... 자손들의 효도가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정숙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과 함께 다음에는 박연교 권사님을 뵈러가자고 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모임에서는 우리 교회의 보배이신 신영각 집사님의 특강 “사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의 심중을 감동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2월에는 구정이 2월 5일이었기에 회원님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지난 세월 등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정치 시대때는 신정을 일본의 설이라고 구정만을 고집했는데 세월을 지내고 보니 그게 아닌데 그때는 몰랐다고 말씀하신 회원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옛 추억을 회상해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옛날 시절로 돌아가 잠시 추억에 젖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흰 눈이 목화송이처럼 내리던 날 손에 장죽을 들고 밖을 내다보시면서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 감을 자랑마라” 하시며 시조를 읊조리시던 할아버님 생각에 잠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정 설날에는 모두 의복을 갖추어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날에는 20세 전후 청년들과 아이들이 오고, 둘째날에는 4,50대 장년들이 오고, 셋째날에는 60대 어르신들께서 오십니다. 저희들이 사랑방을 들여다 보면 서로 맞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안채로 뛰어들어가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분들께서도 어르신들이니 덕에

서 세배를 받으시고 셋째 날 오셔서 담소하시다가 해가 누엣누엣 황혼이 물들면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시고 돌아서시던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때 그분들은 지금 안 계셔서 추억으로 남아 기억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달 전부터 콩나물을 기르시는데, 손잡이가 넷 달린 질그릇 시루에 속에는 마른 콩을 넣고 위에는 물에 불려서 고리가 달린 콩을 시루에 얹혀 삼발이를 놓고 큰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저희들에게 매일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콩나물이 자라 시루를 채우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콩나물을 뽑아서 삶고 고춧가루 갖은 양념 들기름에 무쳐 큰 놋 양푼에 담아 장작불로 가마솥에 데운 물 위에 두고 손님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떡국을 내는데 밀에 국수를 삶아서 한 사리 넣고 위에 떡조각을 덮는 그런 떡국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집이나 살림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벌써 김장김치는 묵은 내가 납니다. 아버님께서서는 가을 김장이 끝나면 땅속에 움을 만들고 배추, 무를 그곳에 보관하셨는데 그것을 꺼내 곱절이를 담그시면 그렇게 맛이 좋았습니다. 또 가을걷이가 끝나면 엷을 고아서 강엷을 만들고 콩, 쌀, 옥수수를 튀겨서 엷물에 무쳐서 상위에 퍼 식히면 과자대용 산자가 되었습니다. 또 콩을 갈아 짜서 뜨겁게 끓여 간수를 넣고 두부를 만들어 두부부침을 만들고 묵은지를 물에 행귀 녹두 빈대떡을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린 세배꾼들을 위해 감주를 만들고, 어른 세배꾼들을 위해 막걸리를 담가 익으면 용수라는 등근 소쿠리를 향아리 가운데 넣고 약주술을 뜨고 나머지 모두 걸러서 막걸리를 만들어 손님대접을 하시던 어머니도 이젠 안 계시고 세월은 가도 추억은 그대로 살아 남아서 아련한 그리움을 자아냅니다.

이 미국에 이민 와서 30여년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옛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배우며 살아갑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더 매사에 열심히 살아 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의 생활을 감사드립니다.

권사회

회장 김영미 권사

2019년도를 시작하며 설레임과 함께 권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하실 모든 권사님들의 도와주심을 알기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는 임시 총회로 모였습니다.

2019년에 권사회를 섬겨 주실 회장 김영미 권사, 부회장 겸 서기에 서명숙 권사, 회계 김정림 권사, 고문: 이성혜 사모, 김정림, 신미송 권사님들이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비슷하게 권사회에서 섬겼던 일들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상록회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하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새로 임직되신 윤만강, 윤미자 두분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번째 행사로 상록회를 위해 2월24일 1부예배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의 volunteer 로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도와주셔서 마음까지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권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슬픈 소식은 송미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 현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3월 9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권사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송미자 권사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10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슬로베니아 여성분들을 위한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를 참여하여 그곳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권사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함께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로 위로와 권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권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꺾서영 집사

2019년 회기가 시작된 2월부터 마리아 여선교회는 새로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의 주요 사업은 1부 예배 후 다과 준비와 교회 외적인 행사와 대외 협력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의 시작인 2월부터 5월까지의 행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중보기도모임을 2월 26일에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2. 세계기도일 예배를 3월 10일에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록회, 권사회, 에스더 여선교회, 그리고 마리아 여선교회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세계의 여성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슬로베니아의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이 쓴 기도문을 모두가 함께 낭독하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의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성천 목사님께서 전하신 누가복음 14장 15~24절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초대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3. 마리아 여선교회의 헌신 예배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리아 회원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헌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예배를 통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4월 12일(금)-13일(토)에 뉴욕, 스톤 포인트에서 있습니다.
5. 청년부/유스그룹 식사 대접이 4월 28일에 있습니다.
6.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전국모임 및 총회가 5월 2일(목) - 4일(토)에 뉴저지,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정은아 집사

2019년 2월 3일 1:30분 교회 101호에서 에스더 임시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임시 총회에는 특별히 국내선교회 이선영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에스더 사역에 적극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여러 자매님들의 질문에 전도와 선교의 맥락이 같고 어떤 일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를 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2019년에 있을 모든 행사들을 프리뷰하며 일년의 사역을 모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에스더 각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며 에스더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에스더 임원진들의 본격적인 사역은 3월부터인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인 우리 목사님 생신 축하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교실에 모이신 많은 분들과 함께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래오래 주님과 동행하시며 보스톤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뿜어주실 목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여성기도회가 열리는 날은 주최하시는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부탁해 주신 기도문 일부를 읽으며 세계 여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도 알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에스더 여선교회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W news

Smile when you use Amazon!

When you purchase items from Amazon.com, you can simultaneously donate to PW. Just use Amazon Smile.

Visit **smile.amazon.com** and select Presbyterian Women as your favorite charitable organization.

Shop as you normally would through “regular” Amazon, and a portion of the purchase of eligible items is donated to PW. In other words: you shop, Amazon gives, PW receives.

[겨자씨 축제] 소식

담당교역자 김수영 목사

2019년도 사순절을 맞아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여호와 닛시’를 주제로 각자의 삶에 임하신 여호와 닛시의 이야기를 풍성히 나눔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기억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여호와를 알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주일학교에서는 사순절 동안 3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가정의 이야기

사순절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삶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닛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첫째 주를 지난 시점에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 가량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여호와 닛시 이야기’를 들었음을 주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매주 요일을 정하고, 어떤 가정은 사순절 동안 한, 두 번 시간을 정해서 가정의 이야기를 ‘여호와 닛시’라는 주제로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2.겨자씨 선물 가방 이야기

삭개오의 삶에서 ‘여호와 닛시 이야기’를 찾자면, 세리장이 되어 권세를 누린 이야기도, 부자가 되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이야기도 아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들을 네 갑절로 갚아준 구제와 나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누가복음 19장 8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순절의 중요한 실천인 구제를 통해 우리의 ‘여호와 닛시 이야기’가 꽃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 위원회에서 후원하는 Emmanuel Gospel Center의 소개로 연결된 Boston Health Care for Homeless Program이라는 단체에서 돌보는 보스톤 지역 homeless 어린이가 약 600명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중고등부와 함께 그곳에 우리의 축복의 마음과 선물을 초록색 가방에 담아 부활절에 맞추어 보낼 예정입니다. 이웃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순절에 실천해야 할 ‘구제’를 함께 배우며,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임하실 여호와 닛시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3.3세대 이야기

주중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3세대 교회인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일학교 예배에 모실 예정입니다. 두 분의 은퇴 장로님(김문소, 권복태 장로님)과 상록 기도회장님(이숙재 권사님)을 모시고, 그 분들의 이민과 삶에 임하신 ‘여호와 닛시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손주라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깃발을 함께 확인하게 될 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깊고 강하게 남은 그 이야기는 1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3세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 3가지 사역의 영감을 주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너는 잊지 말지니라’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시킬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율의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곧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께사장의 삶을 살 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 여호와 낫시의 이야기...

교우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율의 승리의 이야기를 전수시키십시오. 우리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전수시키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항상 펄럭이며 휘날릴 것입니다.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구현우 전도사
보고 안성민 교사

1월에 lock-in을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학생들과 얘기하며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1월 동안 계속 가졌습니다. 하지만 눈폭풍으로 인해 본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으나 lock-in을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로웠으며,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lock-in 자체도 더 은혜롭게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게 되어 결국 2월에 lock-in을 한 것이 여러모로 다행스럽고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ock-in동안은 몇 가지 게임들과, 함께 저녁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 사이 뜻 깊은 친교를 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찬양의 시간도 가졌는데, 이때 노래 부르고 기도를 하며 학생, 선생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재밌는 게임을 통해 더욱 더 서로와 가까워지고, 아침에는 몇 선생님들이 일찍 일어나 학생들을 위해 아침을 만들며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ARISE Praise Night과 Basketball Tournament와 함께 말이죠. 3월 15일 금요일에 열린 Praise Night은 보스턴 주변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토)에 열린 Basketball Tournament에서는 우리 교회 팀과 학생 몇 명이 1등을 하는 멋진 장면도 나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며 중고등부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도 똑같은, 그냥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1부

담당교역자: 이요한 목사

청지기 청년1부는 2019년 표어를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마 5:14-16)로 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성장하며,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빛을 키워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요한/김희진 목사 가정을 중심으로 최학수/최안나 간사님, 사공현일/박정은 간사님, 심상길/심세희 간사님 가정이 청년들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 김현모(Joseph), 부회장 윤대원, 회계 한선인, 찬양팀장 부지형(John), 환영팀장 김현아, 이벤트팀장 김예나와 봄학기 동산지기(소그룹 리더)인 윤도현(Sam), 윤석영(Dan), 홍지형이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봄학기의 전반기 동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을 금요모임 때 묵상했습니다. 사순절 기간부터는 “마굿간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를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모임은, [말씀과 함께: 에스라]로 동산별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가졌으며, 사순절 기간부터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남은 봄학기 동안, 청년1부는 Lock-in과 Youth Group연합모임, 2019 정기총회, 국내/해외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봄학기 lock-in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좀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저녁식사 금식, no snack, 중보기도회 및 토요일 봉사활동을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Youth group과의 연합모임은 찬양의 밤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youth group시절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이 청년1부와 좀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기총회 때는 지난 1년 동안의 청년1부 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2019-20 회기를 섬기게 될 회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매년 5-6월 중에 갖고 있는 음식 바자회는 국내/해외선교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늘 가슴깊이 사랑을 담아 기도와 성원 보내주시고, 특히 주일 점심식사로 청년들을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봄학기 및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4~5월 동안, 청년들이 학교와 가정/숙소, 직장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빛의 동네가 되어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젊은 청년의 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어 신앙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2부는 작년부터 “주 안에서 Peace reigns”란 표어로 현 임원진들이 교역자님들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친교실 봉사/Pre-Activity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교제를 위한 Activity로 볼링경기를 가졌습니다. 3월 3일에는 세미나를 “거룩한 예배로서의 설교 듣기”란 주제를 가지고, 김수영 목사께서 인도해 주셨고, 3/16(토)에는 교제를 위한 자매의 밤을 윤경문 목사님택에서 가지며 신앙안에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empower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행사로는, 매년 가지는 청년 2부 수련회를 4/5-7일 Grotonwood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Knowing God: A Christian Life in a Busy World” 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바쁜 삶,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어떻게 크리스찬 라이프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더 불어 하나님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김민철 목사님(버팔로 새소망 교회)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회장단이 장소 답사 등, 수고하고 있으며, 찬양팀이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조별 리더로는 이주영, 김유진, 엄순호 교우가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도전 받으며, 하나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부 청년부

회장 신준섭/박예리 집사
보고 신준섭 집사



장에서 1년간 연수 차 오신 김봉성/김지혜 가정과 보스톤에서 학업을 위해 오신 송상일/이은별 가정이 부부청년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공동체가 더욱 더 활기차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는 보스톤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가는 40세 이하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2019년 3월 등록가정 기준으로 40여가정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예배 후 꾸준히 약 20가정이 모여,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며, 식사 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부부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프랭크 임/이수경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달여 지난 지금은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매 주일마다 함께 부부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가정들을 부부청년부에 계속 보내주셔서 그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부부청년부 안에서 성경공부 조 편성을 새로 하였고, 모든 가정이 새로운 조에 속하여서 교제와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부부청년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과 더 깊은 나눔을 갖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조모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는 조장님들, 그리고 말씀으로써 그리고 기도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김성천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긴 보스톤의 겨울도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가올 봄에도 부부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가족에게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었다면, 부부청년부(부청)를 수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천 목사님께서 부청 졸업식 때 필요하시다며, 저희 가정이 부청 활동하는 동안 찍은 사진을 몇 장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사진들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년간의 보스턴에서의 삶, 그리고 부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소풍’은 우리의 삶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청은 우리 가족의 소풍길에 만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가에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그곳에 기대어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나무 그늘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볕을 쬐기도 하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낮잠을 청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낮잠에서 깨기도 하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함께 졸업하시는 가정과 부청 OB 가정들은 저희가 기뻐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었구요. 지금 계시는 우리 부청 멤버들은 따뜻한 햇살 같았으며, 매주 새로 오시는 가정들은 시원한 바람을 몰고 와주었습니다. 물론 몰고 가신 가정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박성천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으로 노래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소풍이 끝나 그 분을 만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 할 것입니다. 비단 부청의 삶만이 아름다운 풍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자그마한 돌 뿌리 마저도 소풍길을 아름답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기뻐하며 저에게 주어진 소풍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3월 쉐마의 밤

3세대가 함께 하나되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쉐마의 밤이 3월 23일(토) 열렸습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서는 올해 새롭게 임직 받으신 서리 집사님들의 소개와 찬양이 있었고, 이어, 제직 훈련을 받고 계신 안수 집사님들의 “사순절 보내기”란 주제로 감동있는 Skit을 보여 주셨습니다.

Arise에 참석하여 남/여 농구의 상을 받은 중고등부의 Trophy 증정식이 이어졌으며, 청년 1부의 “산 위에 있는 동네”(작곡: 부지형) 찬양으로 쉐마의 밤을 아름답게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이란 제목의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3세대간에 이어지는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주신 신임 안수집사님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직수련회 행사안내

보스톤한인교회 2019년 제직수련회가 김은주 목사님 (Church leadership 연구의 전문가, 뉴욕 거주)을 강사로 'Yesterday, Today, & Forever: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4월 6일 (토요일 4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제직수련회에도 교회 여러 위원회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 사역별 모임의 시간을 가지고, 제직들 간에 교제하고, 각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가자들이 자신의 교회봉사 경험, 관심사역,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나누고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신임 제직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아직 교회 봉사에 참여치 못한 분들이 하나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직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며, 교회의 여러 사역을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개회예배/신임제직 소개/ 사역별 모임 (4:00 - 6:30 pm)

저녁 식사 6:30-7:20 pm

2부: 주제강의 (7:20 - 9:00 pm)

행사 계획

4월	6일	제직수련회	5월	5일	어린이 주일
	5-7	청년 2부 수련회		12	어머니 주일
	12-14	YG retreat		19	한가족 예술제
	19	성금요일		25	쉐마의 밤
	21	부활절 예배/성만찬			
	27	집사회- 대청소			
	28	2세 교육세미나			

나누고 싶은 모습



에스더 여선교회-이영길 목사님 생신



청년1부



YG- ARISE_Praise_Night



청년 2부



3 월 웨마의 밤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